일상을 풍요롭게 채워주는 생활 도구들

윤광준의 생활명품 101

윤광준 지음

언젠가 윤광준의 경기도 일산 작업실 '비원'을 찾았을 때 공간 이곳 저곳에 놓여 있는 물건들을 유심히 살펴본 적이 있다. 오디오 전문가로 알려진 그의 이력에 비춰봤을 때 오히려 소박한 오디오 기기가 눈길을 끌었고, 책상 위에 놓인 파버 카스텔 연필을 발견했을 때는 반가운 기분도 들었다.

그의 '물건들'에 눈길이 간 이유는 그가 '일상의 유용하고 아름다운 물건'을 뜻하는 '생활명품'이라는 말을 만들어낸 사람이고, 책을 통해 지속적으로 소개해 왔기 때문이다.

윤광준을 수식하는 단어는 많다. '잘 찍은사진 한장' 등을 쓴 사진작가이자, '소리의 황홀'을 쓴 오디오 전문가이자, '심미안 수업'을 쓴 예술 애호가이자, '생활명품' 창시자다.

'윤광준의 생활명품산책'(2002), '윤광준의 생활명품'(2008), '윤광준의 新생활명품'(2017)에 이어 나온 '윤광준의 생활명품 101'에 대해 출판사는 '윤광준의 생활명품' 시리즈 궁극의 에디션으로 명명했다.

책은 바리캉부터 깔창까지, 화분부터 피아노까지 몸과 생활공간을 풍요롭고 디테일하게 가꿔 주는 아름답고 쓸모 있는 일상의 물건 101가지를 소개하고 있다. 여기서 생활명품이란 무조건 비싼 제품보다는 유용한 쓰임새와 완성도 높은 만듦새를 자랑하는 물건, 시간이 흐를수록 가치를 더해 일상생활에서 오래 쓰일 수 있는 물건, 우리 삶을 좀 더 풍요롭고 아름답게 채워 주는 물건들을 가리킨다.

샘표 양조간장 701

베른 액티브 체어

토앤토 슬리퍼

그가 20년 넘게 시장과 전문 매장, 백화점과 수입사를 비롯해 세계 곳곳을 다니며 '생활명품'을 찾는 건 '새로운 물건에 대한 호기심' 때문이다. 더불어 "나의 취향으로 찾아낸 물건이 기대 이상의 효용성과 가치로 보답할 때 즐겁"기도 해 물건 찾기는 이어지고 있다.

작가는 이 책이 "단순히 물건 이야기나 상품 정보로만 읽히지 않기를 바란다"며 "그보다는 선택과 취향이 드러난 라이프 스타일에 주목해 달라"고 말한다. 그는 "일상의 시간을 풍요롭게 채우려는 태도가 라이프스타일의 바탕"이라며 "일단 만만한 것부터 돌아보라"고 강조한다.

첫번째로 등장하는 건 일상의 공간을 정원으로 바꾸자는 제안과 함께 반려식물을 위한 여러 용품을 취급하는 선데이 플래닛 47의 작은 화분이다. 또 전통의 장자인 라이터 지포와 만년필 몽블랑 등에 이어 편안한 보행을 돕는 페닥의 깔창, 메가네 후키후키의 안경닦이, 허리띠의 정석 미군용 벨트, 고성능 무선 청소기의 대명사 다이슨 V15, 스텐리의 클래식 진공 보온병 등 다채로운 물건이 소개된다.

그밖에 샘표 양조간장 701, 삼진어묵, 일광전구, 성심당의 튀김 소보로, 복순도가 손막걸리, 액체 조미료 연두 등도 '생활명품' 대열에 합류했다.

각각의 글에는 도구들을 찾아 나서는 이야기, 각각의 명품이 탄생하기까지의 과정과 물건을 만드는 사람들의 이야기 등 삶과 사람, 인생 이야기가 함께 담겼다.

책을 읽고 나면 물욕이 생기는 것은 어쩔 수 없다. 나의 이런 저런 상황(경제적 여건 포함)을 계산해 내 집에 들일 물건을 떠올려보고, 더불어 '나만의 생활용품'도 생각해보게 된다. 〈을유문화사·2만5000원〉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놀라운 하늘의 선물…별과 우주서 쏟아지는 설렘과 희열

당신과 별 헤는 밤이 좋습니다

나쫌 지음

"늘 예상 밖의 놀라운 하늘 선물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어릴 때 SF영화와 만화를 보며 꿈꿨던 설렘이 환갑을 앞둔 저에게 다시 찾아왔습니다"

유튜브 채널 '나쫌(NaZZom)'의 최근 게시 글에 달린 구독자들의 댓글이다. 닉네임 '나쫌'은 나누자 쫌(조금)의 약칭으로, 우주의 아름다움을 혼자 당겨보기 아까워 나누는 채널을 표방한다. 3년 전부터 시작한 채널 구독자가 23만9000여명에 달할 정도로 네티즌들의 인기를 끌고 있다.

'당신과 별 헤는 밤이 좋습니다'는 채널 운영자 나쫌의 첫 포토 에세이집이다. 아마추어 천문가인 저자는 '저는 문과생입니다만'이라는 제목의 서문에서 "제가 경험하고 느꼈던 것들을 토대로 '나쫌'다운 글을 쓰기 시작하니, 마치 일기를 쓰듯 글이 써졌다"면서 "그동안 짧은 영상에서 보여드리지 못했던 '나쫌'의 비하인드 스토리를 나누고자 이번엔 카메라 대신 연필을 들었다"고 했다. 구독자들이 궁금해 하는 방송매체 등에 얼굴을 드러내지 않는 까닭에 대해서도 "사람의 말소리 대신, 자연과 우주에 집중할 수 있는 힐링 영상을 만들고 싶었다. 내레이션 대신 자막과 현장소리 그리고 음악을 선택한 이유도 그 때문이다"고 밝힌다.

저자는 '사람들은 직접 촬영한 우주에 반응했다' 등 7부로 나눠 자신의 천체관측 경험과 느끼는 바를 담담하게 문장으로 풀어낸다. 채널에 올려진 영상은 '비행기에서 별 사진 촬영하는 방법'을 시작으로 이번 신간 소개 까지 총 316개에 이른다. 우주에 궁금증을 품은 저자는 "우선은 지식에 파고들기보다 그냥 그 모습 그대로 우주를 보고 싶었고, 무엇보다 나처럼 갈증을 느끼는 사람들이 느끼지 않을까 생각했다"고 한다. 무이자 할부로 하이엔드급 카메라를 구입한 후 토성을 포함한 행성과 달, 국제 우주정거장 촬영이라는 3가지 버킷리스트를 세운 후 이를 하나하나 실천하며 영상으로 제작했다. 새벽 박명시간에 찍은 토성은 유튜브 알고리즘에 의해 전 세계 네티즌들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저자는 '생각보다 안 될 때의 아이러니'라는 글에서 시행착오를 겪는 모습을 가감없이 드러내며 '별을 보면서 삶에 대한 자세를 돌아보게 된다'고 말한다.

"실패조차도 내 삶의 일부분이고 더 발전한 내 모습을 위한 밑거름이겠지만, 어떤 일이든 너무 미리 실패했다고 단정 짓지는 말자. 예측될 수 없기에 우리 인생이 더 아름다운 것이고, 어쩌면 실패라는 생각에 가려져 못 보고 있을 뿐 더 큰 기회가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른다. 일생에 한번뿐인 레너드 혜성처럼."

또한 저자는 "바쁜 삶 속에 조금씩 틀어져 가는 방향을 다시금 체크할 수 있는 시간, 인생의 여정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시간이 아닐까"라며 독자들에게 잠시나마 하늘을 올려다 볼 것을 권유한다. 별과 우주를 접하며 느끼는 저자의 설렘과 희열이 독자들에게도 오롯이 울림으로 전달된다. 〈크레타·1만7000원〉

/송기동 기자 song@kwangju.co.kr

새로 나온 책

▲어린 시절의 부모를 이해하는가=인간이 태어나면서 가장 처음 맺는 인간관계인 '부모 자식 관계'. 이는 우연히 결정되지만 인간이 앞으로 살아가며 마주하게 될 사랑, 우정, 직장생활 등 다른 모든 관계의 뼈대를 이룬다. 심리상담을 받는 이들이 겪고 있던 부모와의 문제를 분석하면서 임상 경험, 훈육 과정에서의 마찰, 정신의학 지식 등을 총망라한다. 미숙했던 우리의 어린 시절, 당시 부모 또한 미숙했음을 알려준다. 〈또다른우주·1만6800원〉

▲브레인 케미스트리=인간관계를 관장하는 것이 '뇌'가 아닌 '뇌 속 화학물질'이라는 사실은 신경과학에 대한 근본적 호기심으로 다가온다. 행복을 유발하는 세로토닌, 중독을 야기하는 도파민, 모성을 불러일으키는 옥시토신과 같이 알려진 화학물질들도 하나의 기능만을 수행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이야기한다. 각각의 신경물질들이 분비되는 양, 속도, 위치, 분비 타이밍 등에 따라 뇌에 다양한 화학 반응을 만든다는 사실도 자세히 설명한다. 〈위즈덤하우스·2만1000원〉

▲중국이 말하지 않는 중국=미국과 경쟁하며 찬란한 문명을 이뤄낸 중국, 현대 중국의 문명을 이룬 기저에는 시진핑의 '중국몽'이 자리 잡고 있다. 중국몽은 시진핑 집권 후 등장한 개념 같지만, 그 근간이 되는 사상들은 100여 년 전 쑨원 등의 정책에 기초하고 있다. 중국 지식인들이 근대화 비전을 달성한 방법을 들여다보고, 시의적인 이슈들을 다루는데 대만 영토에 대한 중국의 태도, 내부 분열 등 문제 등을 초점화한다. 〈다산초당·2만8000원〉

▲연결된 위기=국제질서의 혼란과 한반도의 불안을 야기한 우리전쟁은 2022년 2월부터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전쟁이 세계질서의 재편성에서 비롯된 '신냉전'이라는 분석이 뒤따랐지만, 단순히 강대국들의 냉전으로 치부하기엔 우리전쟁에 얽힌 이해관계는 복잡다기하다. 크게 미국 책임론, 러시아 책임론, 양비론이라는 세 가지 관점에서 우리전쟁을 분석하고 세계질서와 '얄타 체제'의 붕괴를 이야기한다. 〈생각의힘·2만2000원〉

어린이·청소년 책

▲기념일의 무게=이게 사랑이 맞을까? 스스로의 마음에 갈피를 잡지 못하는 십대 청소년들의 사랑이야기. '내일 편지', '권태준 권태기', '오후 4시, 달고나', '기념일의 무게', '그래도 네가 좋아'의 단편소설 다섯 편은 사랑을 공통된 주제로 삼는다. 권태기에 빠진 커플, 짝사랑의 아픔과 애절함, 이벤트의 압박감, 시간을 갖자는 말에 상처받는 모습 등 사랑의 여러 양상을 담았다. 〈마음이음·1만3000원〉

▲수학자 도감=생각만 해도 지루한 수학을 이야기 속에 쉽게 녹여낸다. 고대 그리스에서도 '최초의 수학자'라 불리는 탈레스, 만물은 수라고 말했던 피타고라스부터 피보나치, 파치올리까지 그림과 함께 수학이론을 쉽게 알려준다. 근대 수학자인 데카르트와 미적분의 창시자 뉴턴 등 다양한 수학자들의 이론과 이에 얽힌 예화를 소개한다. 〈뜨인돌·1만5000원〉

▲아이샤의 돌멩이=어린 코끼리 코코로와 아이샤는 서로 어울려 놀지 않고 멀리서 관찰한다. 먼발치에서 바라보며 교감하는 방식으로도 서로 가까워질 수 있다는 사실은 아이들에게 새롭다. 코끼리들은 다른 부족끼리 서로 잡아먹는 에티오피아에서 다른 종끼리 어울리는 모습을 보면서, 80개 부족이 언젠가 평화롭게 지낼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한다. 〈우리교육·1만3000원〉